

이야기 구조의 구성 모형에 관한 연구

한 명 숙*

〈차 례〉

- I. 논의 열기
- II. 이야기 구조의 구성 가능성
 - 1. 구성적 개념의 이야기 구조
 - 2. 학습독자의 자기생산성
- III.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 설계
 - 1. 이야기 구조의 구성소
 - 2. 독자 구성의 작용기제
 - 3. 학습독자의 감상위치
 - 4.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
- IV. 논의 맺기

I. 논의 열기

문학교육의 가장 큰 영향력은 학교 문학교육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신현재는 학교에서의 문학교육이야말로 문학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시발점이요, 기틀을 다지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 이와 같은 학교 문학교육의 중요성은 실제의 문학교육

* 한국교원대 강사

1) 신현재, 「학교 문학교육(學校 文學教育)의 위상(位相)과 지향점(指向點)」,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학 제 10집, 2002 겨울, 160면.

현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물음으로 환원되며, 그 세부 내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문학교육의 세부 내용 가운데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야기 구조이다. 이야기 구조는 이야기 세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야기 구조에 대한 경험은 이야기 세계를 깊이 있게 통찰하게 하고, 이야기의 세계를 삶의 세계로 전이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찰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 작품이 사람과 삶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담아 놓은 예술이며, 그것을 나름대로 구조화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구조에 관한 교육적 경험은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문학교육의 시기부터 이야기 구조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그로부터 주체적인 의미를 구성해 내는 이야기 감상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학교 문학교육의 중요성과 이야기 구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학교 문학교육에서 학습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 구조의 구성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야기 구조를 구성해 보는 경험은 학습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독자를 심미적인 감상의 주체로 기르는 충실한 서사문학교육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독자가 자율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바람직하다. 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이야기 구조의 지향은 구조주의적 패러다임과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닌 각각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는 제3의 관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학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안에도 존재하고, 또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독자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도록 하는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텍스트 요인을 고려하면서 독자의 자율성이 반영된 모형이 될 것이다.

학교 문학교육은 학습독자에게 이야기 세계를 경험하는 데 유용한 도구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설계하는 독자가 중심이 되는 구성적 관점의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문학교육의 장에 이야

기 감상의 도구를 제공하고, 학습독자에게 구체적인 감상의 방법론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II. 이야기 구조의 구성 가능성

1. 구성적 개념으로서 이야기 구조

이야기 구조 교육의 기획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이야기의 내용 측면을 중시하여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를 다룬다. 둘째, 이야기는 언어적 매개체에 의해 전달되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허구적 서사문학으로서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의된 이야기를 다루는 까닭은 초등 학습독자에게 이야기의 내용 측면을 중시한 스토리가 가장 우선되며, 언어적 전달 매체를 사용하는 이야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이야기 구조 교육을 문학교육적 개념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서사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룬다.²⁾

이 논문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이루어내는 허구적인 세계로서의 이야기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를 인물과 세계와의 '관계' 양상이 그려진 세계로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아와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정의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인물을 둘러싼 세계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야기 속 세상을 살아나간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다양한 인물이 다채로운 세계와 만나 다채로운 관계를 맺어 나

2) 이와 같은 개념적 자기장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초등 학습독자는 발달적 특성 상 이야기가 지닌 스토리 그 자체를 즐긴다. 둘째, 허구적 서사물로서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전래 이야기와 창작 이야기를 두루 포괄하여 논의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서사문학 가운데 아동서사문학은 시점이나 서술보다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스토리 자체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가는 모습을 형상화해 낸다.

조동일이 장르론에서 거론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 역시 자아와 세계의 다채로운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소설 문학뿐만 아니라 동화 문학에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아와 세계의 다양한 관계 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 속의 자아와 세계가 다채롭게 관련되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의 개념을 정의한다.

한편 이야기를 자아와 세계가 이루어내는 허구적인 세계라고 할 때, '자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작품 내적 자아와 작품외적 자아이다. 먼저 작품 내적 자아는 이야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다음으로 작품외적 자아는 이야기 세계 밖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작가나 이야기를 들려 주는 화자 및 독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야기 감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은 독자이다. 이 독자는 이야기 세계의 이차적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가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text)와 독자에 의해 이해된 작품(work)을 구별하는 관점과도 상응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작품외적 자아로서 독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허구적인 인물과 세계의 관계 양상이 작품외적 자아에 의해 구성된 또 하나의 허구 세계'이다.

이상에서 정의한 이야기는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조체라 할 수 있다. 이 구조란 물론 텍스트 중심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야기 구조가 정태적인 개념만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이 작품외적 자아로서의 독자에 의해 주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품외적 자아로서의 독자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교육 장면에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학습독자를 중요하게 다루어,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가능성의 토대로 삼는다.

문학에서 독자가 강조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이는 문학을 독자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는 태도를 포함한다.³⁾ 여기에 독자반응비평 이

론이 소개되면서⁴⁾,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의 수용뿐만 아니라 그 반응 까지도 중시하는 문예학적 관점을 형성하였다. 게다가 이저(W. Iser)가 예술 작품을 이루는 두 개의 축을 형성하는 독자의 의미에 비중을 두고 '내포 독자(Der implizite Leser, implied Reader)'라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⁵⁾ '독자' 개념은 더욱 정교하게 이론화되었다. 이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주체"⁶⁾로서의 독자를 넘어서서 이야기를 경험하고 해석하고 음미하는 능동적인 감상의 주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문학 감상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텍스트의 의미란 것은 개개의 독자의 "생산" 또는 "창조"이며, 따라서 텍스트의 언어적 부분이나 예술적 전완체의, 단 하나의 정확한 의미란 있을 수 없다"⁷⁾는 견해를 수용하여 독자의 개념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독자'개념의 부각은 로젠블랫(L. M. Rosenblatt)의 거래이론(Transaction Theory of the Literary Work)⁸⁾과 함께 '학습독자'개념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김중신은 '학습독자'의 특성을 밝히고,⁹⁾ 그 용어와 개념의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게다가 구성주의 사조가 교육적 관점으로 적용되면서 학습독자는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주체'와 '과정'의 강조로 이해되는 구성주의는 '관찰자(인식자)의 개념, 인식된 것(관찰 대상)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와 같은 세 가지 개념 간의 관계를

3) 홀랍, 최상규 역, 『수용이론』, 삼지원, 1985, 93면.

4) 이저(W. Iser), 차봉희 편, 『독자 반응 비평』, 고려원, 1993.

한편 '수용미학'이나 '독자반응비평'에 관한 용어 사용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혁준은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혼용되고 있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두 용어 사용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혁준은 두 용어가 대체적으로는 '독자반응이론'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을 통찰하여 제시하고 있다. (권혁준, 1997, 139~140면)

5) 위 책, 57면, 231~232면.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213면) 참조.

7) 에이브람스,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예림기획, 1997, 300~305면.

8) L.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4.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8).

9)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101~105면.

다루는 것'¹⁰⁾을 중요시하는 인식론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 논문에서 학습독자를 강조함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독자를 이야기 감상의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학습독자의 강조는 프롭(V Propp)의 『민담형태론』이나 프라이(N. Frye)의 신화 구조 및 이야기 원형 분석과¹¹⁾ 최근 텍스트 언어학에서 이루어지는 서사구조 분석이나 이야기 문법의 분석¹²⁾과는 다른 이야기 구조의 장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에서 거론한 이야기 구조의 교육적 체험을 위해서는 학습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야기 구조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일은 이를 위한 선행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각적인 이야기 구조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인물과 세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야기 구조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것은 '자아와 세계가 이야기 속에서 형성하는 관계구조'를 의미한다. 관계 중심의 이야기 구조는 인물과 세계가 이야기 속에서 엮여지는 관계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 학습독자에게 유의미한 이야기 감상 경험임을 반영한 것이다. 이야기는 인간과 세계 및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모습을 형상화한 또 하나의 허구 세계이기 때문이다.¹³⁾

2. 학습독자의 자기생산성

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도록 하는 도구적 장치로서 이야기 구

10)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1999, 6~7면.

11) 프롭,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2000.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7.

프라이, 김상일 역, 『신화문학론』, 을유문화사, 1987.

프라이, 이상우 역,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1992.

12) 고영근, 『텍스트 이론』, 아르케, 1999, 216면 참조함.

13) 이와 같은 미학적 관점을 송면의 『소설미학』에서 읽을 수 있다. 송면은 "소설은 원래 인간 관계를 표현하고 어디까지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술"(1992, 49면)로 보았다.

조 구성 모형에는 '독자'와 '구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균형 있게 함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 감상 주체로서의 '독자'와 이야기 구조의 '구성' 행위를 강조하면서, 구성주의의 장점을 살린 이야기 구조 교육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주체의 문제는 텍스트 내의 주체를 판독하는 기초적 문학능력에서 문학텍스트와 세계를 조응하고 인식하는 주체, 즉 성숙한 독자를 발달시켜 나가는 고급적 문학능력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이고 다층위적으로 개입한다.¹⁴⁾ 학습독자는 문학교육에서 학습의 주체가 되는 독자이며,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수용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감상의 주체가 된다. "자아의식을 지닌, 자기생산적인 autopoetisch 하나의 생명체라는 의미에서 주체란 의의산출 Sinnproduktion의 경험 사실구성적인"¹⁵⁾ 측면에서 이야기 의미를 구성하는 생산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주체는 "자율성과 자기생산성"¹⁶⁾을 지닌 존재이다.

학습독자의 자율성과 자기생산성은 정태적 개념의 이야기 구조를 동태적 개념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학습독자 스스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게 할 때 가능해진다. 이 때 '구성'의 개념은 의미가 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의미를 구성하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주체'와 의미 구성의 과정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독자를 의미 구성의 주체이자 자율성과 자기생산성을 지닌 구성적 주체로 상정함으로써, 이야기 구조의 구성력을 이루는 토대로서 그 위상을 세운다. 따라서 독자가 구성하는 이야기 구조는 '독자가 구성하는 이야기 세계의 관계 구조'라고 규정한다.

14) 박인기, 「문학교육과 자아」,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16면.

15) 슈미트·하우프마이어, 차봉희 옮김,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63면.

16)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J. Varela), '자율성과 자기생산'(지크프리트 J. 슈미트 편저, 박여성 옮김, 『구성주의』, 까치글방, 1995), 121~133면.

Ⅲ.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의 설계

이야기 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 양상을 밝히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를 마련하고, 그 각각의 구성소가 이야기 구조의 구성 과정에 작용하는 '작용기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설계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여기에 또 하나의 변인으로서 독자의 '감상위치'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한다. 이들 변인은 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1. 이야기 구조의 구성소

구조주의적 방법은 어떤 체계를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전체를 이루는가를 탐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모형의 설계도 먼저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요소를 찾아 그 요소들이 이야기를 이루는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계 즉 이야기 체계를 이루는 불변하는 상수로서의 요소들이며, 그것들 사이의 관계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먼저 이야기 구조를 학습독자가 구성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소'¹⁷⁾를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주의적 접근법이란 불변하는 상수를 탐구하거나, 아니면 피상적인 차이에서 불변의 요소를 추구하는 것"¹⁸⁾이니, 구성소의 추출은

17) 구성소라는 말은 구성요소를 축약한 말이다. 이러한 용례는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레비스트로츠(Claude Lévi-Strauss)가 신화를 연구할 때 '신화소(mythemes)'를 찾고, 식사 문제를 취급할 때는 '식소(gustemes)'라는 것을 찾고 또 사실 찾아내었다고 하니(이육, 「스트로츠의 구조주의이론」, 계간문예춘추 문학사연구회 편, 「문학의 구조주의적 접근」, 백문사, 1988, 18면), 이야기 구조의 구성요소를 '구성소'라 할 수 있다.

18) 레비 스트로츠(Claude Lévi-Strauss), 임옥희 역, 『신화와 의미』, 이팔리오, 2000, 26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구조적 관계를 드러낸다. 여기서 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불변의 상수는 이야기 감상 과정에서 학습 독자에게 불변하는 이야기 세계의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불변하는 상수로서, 인물과 세계라는 두 요소를 이야기 구조의 구성소로 삼는다. 아울러 이야기를 이루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자아와 세계가 형성하는 '관계'를 제3의 구성소로 삼는다. 따라서 이야기 구조의 구성소는 모두 3개이다.

1) 허구적 자아의 정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구성소로서 허구적 자아는 구체성을 띠어야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허구적 자아의 구체성은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점의 구체성을 의미한다. 허구적 자아를 구체화하는 관점은 인물을 자율적 존재로 다루어야 가능하다.

인물의 자율성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으로 채트먼(S. Chatman)을 들 수 있다. 채트먼은 인물들을 단순한 플롯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¹⁹⁾ 채트먼(S. Chatman)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학습독자의 주체적 감상의 결과에 따라서 형성되는 허구적 자아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처럼 인물을 자율적 존재로 파악하는 접근법은 인물이 이야기 안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토대로 인물에게 정서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허구적 자아의 정서를 생성하게 한다. 또 다른 접근법을 파생한

2) 인식된 허구 세계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소로서 이야기가 보여 주는 허구 세계

19)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2000, 128~167면.

는 학습독자에게 인식된 세계로서 중요하다. 이야기가 보여 주는 허구 세계는 어디까지나 학습독자에게 인식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야기 텍스트 자체가 암시하는 세계의 존재도 부인할 수 없으나, 학습독자의 이야기 수용을 중요시한다면, 학습독자에 의해 인식된 이야기 세계야말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초등 학습독자는 이야기 세계나 현실 세계를 지각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 또 거기에는 학습독자 개개인의 수준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이야기 세계를 인식하는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인식된 허구 세계는 이야기 안의 삽화와도 같은 미세한 세계보다는 인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계를 의미하게 된다. 물론 어떤 학습독자는 미세한 세계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대부분의 초등 학습독자는 이야기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변 인물과 인물들이 벌이는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주변 환경으로서 세계를 인식한다. 따라서 이야기 구조를 탐색할 때에도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계로서의 허구 세계를 인식한 양상이 그 구성소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3) 자아와 세계의 관계 해석

이야기 체험이 인물과 그 인물이 살아가는 세계와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이야기 구조의 구성소로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설정하게 한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야기 구조를 탐색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 양상 및 그 구조에 따라 이야기의 인물과 세계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과 세계는 관계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계가 어떤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이는 이미 세계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²⁰⁾ 이런 관점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 역시 상

20) 번스타인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온 개념들을 검토할 경우 -합리성, 진리, 실재, 옳음, 선, 규범들이건 간에- 결국 그 개념들 모두 특수한 개념적 도식이나 이론적 구조를, 패러다임, 삶의 양식, 사회, 문화에 따라

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는 관계적 사고의 문제로 전이된다. 박인기는 관계적 사고를 돕는 정의 교육을 전망적으로 제안하면서 관계적 사고가 '삶의 총체적 이해'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²¹⁾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바로 이런 이 관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즉 이야기 속의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탐색하게 하는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수립함으로써 이야기를 통한 관계 중심적인 체험을 삶의 체험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학습독자가 허구적 자아와 맺는 관계도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소가 된다. 이야기 구조의 체계는 이야기 세계 안에서 형성되는 구조와 학습독자와 이야기가 형성하는 구조로 이원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습독자가 허구적 자아와 형성하는 관계구조 역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작품외적 자아로서의 학습독자가 작품 내적 자아와 형성하는 관계구조를 의미한다.

2. 독자의 구성적 작용기제

지금까지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불변하는 요소로서 다룬 '허구적 자아의 정서'와 '인식된 허구 세계' 및 '자아와 세계의 관계 해석'은 독자가 구성한 이야기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 각각의 구성소에는 이야기 세계의 이해와 수용에 따른 학습독자의 구성적 행위가 개입되는 '작용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이 '작용기제'는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소가 또 각각의 하위 변인을 내포하게 되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정창호 외 역,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보광재, 1996, 25면.) 문학이 이와 같은 진리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예술 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은 이야기 교육에도 수용될 여지가 크다.

21) 박인기,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교육의 향방과 재개념화」,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제11집, 한국문화사, 2000, 17면.

그것은 이야기 경험으로 형성되는 학습독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기에 대한 학습독자의 정서 반응을 내용으로 작용하는 ‘작용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구적 자아의 정서를 형성하는 ‘작용기제’는 ‘결핍’과 ‘충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결핍자아/충족자아’라는 작용기제로 구체화된다. 물론 이 ‘작용기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의 특징은 독자의 정서 반응에 따라 허구적 자아의 정서를 ‘결핍 자아/충족 자아’ 외에도 ‘슬픈 자아/기쁜 자아’나 ‘좋은 자아/나쁜 자아’ 등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적 자아의 정서에 작용하는 정서 내용이 어떤 절대적 진리치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논의 전개 과정에서 ‘결핍 자아/충족 자아’를 허구적 자아의 정서에 작용하는 ‘작용기제’로 설정한다. 둘째, 인식된 세계를 형성하는 ‘작용기제’로는 ‘행복 세계/불행 세계’라는 ‘작용기제’를 설정한다. 이 또한 논의 전개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며, 이 ‘작용기제’ 역시 변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셋째,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인식에 작용하는 ‘작용기제’로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정서를 상정한다. 이것은 정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²²⁾

작용기제를 이원적 양상으로 설정하는 데는 초등의 학습독자가 허구적 자아나 세계 및 그 관계 양상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 내용이 보통 이원적인 양상을 띠기 쉽다는 점에 근거한다. 초등 학습독자는 예를 들어, 좋다/나쁘다, 착하다/악하다(나쁘다), 기쁘다/슬프다, 행복하다/불행하다, 재미있다/재미없다 등으로 이야기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그와 같은 맥락의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베텔하임(B. Bettelheim) 역시 옛이야기가 어린이에게 주는 심리 치료적 효과를 논

22) 정서는 감정과 구별된다. 앞에서 기술한 본트의 정서 결합 체계 연구에도 나타나 있듯이 정서란 감정의 편린이 아니라 감정이다. 20세기 초까지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감정과 혼동되어 사용되었던 정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12면.)

하면서 어린이들이 편가르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도 착하거나 나쁜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상반되는 성격의 등장 인물이 둘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게 하며, 인물의 양극화와 그 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선택이 훗날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²³⁾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이 이원적 작용기제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동서사문학'은 그 외적 자질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인물을 복잡하게 형상화하기보다 좋은 인물과 나쁜 인물 등의 대립이 분명하게 인물을 창조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서도 이 이원성의 의미는 중요하다.

3. 학습독자의 감상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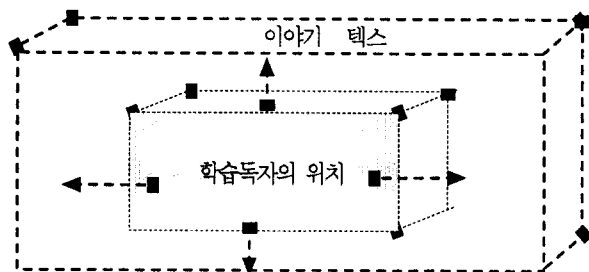
학습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독자가 이야기를 감상하는 마음의 위치이다.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데 관련되는 이야기 외적 요인으로서의 '감상위치'는 이야기에 머무는 학습독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감상위치'란 학습독자가 이야기를 감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그것은 이야기 속의 어떤 인물이나 그 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정한 세계 인식 및 자아와 세계의 특별한 관계 양상일 수도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대할 때의 주의 기울임에 관하여 일찍이 관심을 가진 이는 로젠블랫(L. M. Rosenblatt)이다. 로젠블랫은 문학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는 위치(stance)에 따른 읽기의 두 가지 유형, 즉 심미적 읽기(aesthetically reading)와 원심적 읽기(efferently reading)를 언급하였다.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심미적 위치(aesthetically stance)와 원심적 위치(efferently stance) 사이를 오가기도 하고, 어느 한 위치에 집중하기도 한다고 본 것이다.²⁴⁾

23)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1, 21~22면.

그러나 이 논문에서 말하는 ‘감상위치’는 공간적인 개념을 지향한다. 그것은 이야기 세계의 공간 가운데 학습독자의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공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감상위치의 유동성



위 그림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은 학습독자의 개별적인 ‘감상위치’는 이야기 구조를 탐색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이야기 구조의 구성소로서 허구적 자아를 주인공이 아닌 반대자나 조력자 등의 주변 인물에게 초점을 두게도 한다. 또 이야기 세계 가운데 특정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나름대로 이야기 세계를 인식하기도 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흥미를 끄는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구성소로 형성하게 한다.

‘감상위치’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론할 수 있다. 첫째, 학습독자의 주제적인 ‘감상위치’는 ‘해석의 신축성’을 형성하여 감상의 폭을 넓혀 준다.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는 해석의 의미는 해석의 자의성이나 해석의 무정부 상태와는 다른 개념을 지향한다. 즉 이야기를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신축성’은 학습독자가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별히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

24) 물론 로젠블랫(L. M. Rosenblatt)의 읽기 위치와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감상위치’는 차이가 있다. 로젠블랫의 ‘위치’ 개념은 ‘읽기의 위치’로서 독자가 작품을 읽는 ‘관점’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L.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4.)

진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해석의 신축성’주체적 이야기 탐색의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일리(一理) 있는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둘째, ‘감상위치’는 학습독자에게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게 해 준다. 학습독자의 주체적 이야기 감상을 수용하다보면 이야기 해석이나 감상의 주관성에서 비롯되는 해석의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다루기가 어렵게 된다. 미숙한 학습독자는 자기 감상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서도 혼란을 겪게 된다. 이 때 ‘감상위치’가 해석의 근거가 되면서 주체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학습독자의 ‘감상위치’를 허용하면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이야기 구조의 탐색과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습독자가 <심청전>의 세계를 심청이 눈 먼 아버지를 위하여 인당수에 빠지게 되는 불행한 세계로 인식하는 감상위치에 선다면, 이 이야기는 결핍자아와 불행세계의 슬픈 관계로 구조화된다. 그러나 다른 학습독자가 심청전의 행복한 결말에 ‘감상위치’를 설정한다면, 이 이야기는 결핍자아와 불행세계가 기쁜 관계를 맺는 이야기로 구조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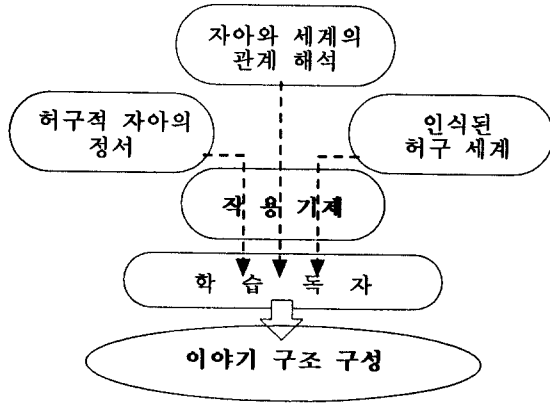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학습독자의 ‘감상위치’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감상위치는 학습독자에게 제2, 제3의 또 다른 이야기 구조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습독자는 이야기 세계를 더 넓고 깊게 구조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다.

4.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에서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허구적 자아로서의 인물 요인과 인식된 허구 세계의 요인 및 이들의 관계구조가 구성소로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학습독자의 ‘감상위치’에 따라 ‘해석의 신축성’을 형성한다. 이들 학습독자의 ‘감상위치’에 따라 이야기 구조의 세 구성소가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실제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2】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



위의 모형은 독자가 주체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학습독자는 허구적 자아의 정서와 인식된 허구 세계 및 그 둘의 관계를 구성소로 하여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이 이야기 구조 구성의 과정에서 각각의 '작용기제'가 작동한다. 이 때 세 구성소는 텍스트 중심으로 작용하고 '작용기제'는 독자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작용기제'의 기능은 이야기 구조의 구성 과정에서 학습독자가 감상의 주체가 될 수 있게 기능한다.

한편 '작용기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야기 구조를 유형화해 주는 것이다. 위의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단순하지만, '작용기제'가 기능하게 됨으로써 이야기 구조는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원적으로 단순한 이 '작용기제'가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소에 각각 작용하면 모두 8가지 유형의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먼저, 허구적 자아가 충족 자아일 경우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양상은 크게 4가지 구조적 범주를 형성한다. 첫째, 충족 자아가 행복세계와 기쁜 관계를 형성하는 이야기 구조가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기쁜 인물과 행복 세계가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룸으로써 기쁜 관계를 형

성하는 관계구조이다. 이를 협력구조라 칭한다.²⁵⁾

둘째, 충족 자아가 행복 세계와 슬픈 관계를 맺는 이야기 구조가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자아와 세계와 관계에서 어떤 배반 요소가 작용하여 생겨난다. 즉 자아나 세계는 모두 기쁜 정서를 유발하는 데 그 관계 양상이 슬픔의 정서를 유발하도록 이야기가 전개된 것은 두 요소의 관계 양상에서 배반이 개입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혼하지 않은 이와 같은 이야기 구조를 배반구조라 칭한다.²⁶⁾

셋째, 충족 자아가 불행 세계와 기쁜 관계를 맺는 이야기 구조가 있다. 자아가 살아가는 세계는 슬프지만 충족 자아는 불행 세계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은 해결 구조는 자아의 정서를 기쁘게 해석하면서 그 기쁜 정서가 불행 세계를 해결하게 하여 기쁜 관계로 연결되는 이야기에서 구성할 수 있다.²⁷⁾

넷째, 충족 자아가 불행 세계와 슬픈 관계로 구조화되는 이야기가 있다.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처럼 선녀와 결혼을 하게 된 충족 자아가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는 불행한 세계를 경험하다가 수탉이 되었다는 이야기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 충족 자아와 불행 세계는 서로 다른

25) 〈혹부리 영감〉이야기에서 도깨비를 만났어도 무서워하기보다 숨어서 도깨비들을 관찰하는 혹부리 영감은 기쁜 정서의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 혹부리 영감이 마주치는 주요 세계는 도깨비와 도깨비 방망이이다. 그리고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관계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충족자아가 행복세계와 기쁜 관계로 형상화된 협력구조를 지닌 이야기로 볼 수 있다.

26) 이와 같은 이야기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다. 즉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를 얻으리라는 기대와 기쁨에 젖은 욕심쟁이가 이웃이 겪은 실제 경험담과 나뭇꾼 산신령이라는 행복한 세계와 만났지만, 결국은 자기 도끼마저 잃고 마는 슬픈 관계구조를 보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었거나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주인공이 탐욕이나 고약한 마음씨로 인해 그 행운을 잃고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배반구조를 보인다.

27) 예를 들어 〈홍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홍부를 가난하지만 기쁜 정서를 가진 인물로 해석하였을 경우 홍부는 충족자아가 된다. 그리고 홍부가 살아가는 불행한 세계의 고난이 홍부의 착한 마음씨 덕분에 해결되고 기쁜 관계로 형상화된 이야기로 구조화할 수 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주인공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 해결구조에 속한다.

정서 상태로 상호 긴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보이는 이야기를 긴장구조라 한다.

한편 학습독자에 의해 허구적 자아가 결핍 자아로 해석되는 경우,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핍 자아가 행복 세계와 기쁜 관계를 형성하는 이야기 구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콩쥐는 보통 새엄마의 구박을 받는 슬픈 인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슬픈 콩쥐가 만나는 세계는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 하나는 새엄마와 팥쥐로 대표되는 불행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두꺼비와 참새와 소 및 선녀로 대표되는 행복한 세계이다. 이 때 학습독자가 두꺼비와 참새와 소 및 선녀로 대표되는 행복한 세계에 감상위치를 둔다면 이 이야기는 극복구조를 가진 이야기로 구성된다.

둘째, 결핍 자아와 행복 세계의 슬픈 관계를 형상화한 이야기 구조를 볼 수 있다. 슬픈 정서를 유발하는 인물이 행복 세계 속에서도 결국 슬픈 관계로 형상화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조이다. 〈도깨비감투〉 이야기와 같이 결핍 상태의 주인공이 행운을 얻었으나 결국 잃게 되거나 불행을 겪는 이야기가 이와 같은 갈등구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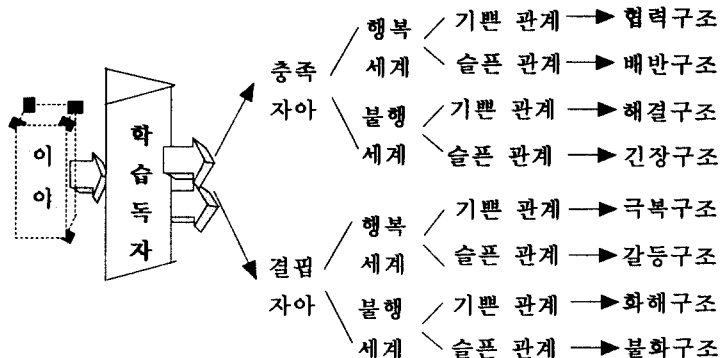
셋째, 만일 〈콩쥐 팥쥐〉 이야기의 세계를 새엄마와 팥쥐로 대표되는 불행한 세계로 인식한다면 이 이야기는 화해구조를 갖는다. 즉 슬픈 콩쥐가 생모의 죽음과 새엄마와 팥쥐의 구박이라는 불행 세계와 화해 관계로 형상화된 이야기 구조로 탐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는 〈콩쥐 팥쥐〉를 결핍 자아와 불행 세계의 기쁜 관계구조로 구성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게 된다.

넷째, 결핍 자아가 불행 세계와 슬픈 관계구조를 형성하는 이야기가 있다. 가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는 이런 구조로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학습독자는 결핍 자아로서의 오누이가 불행한 세계에서 결국 해와 달이 되고 마는 슬픈 관계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²⁸⁾

28) 어떤 학습독자는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된 것을 기쁜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 구조가 구성되는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이야기 구조 구성 유형



이 그림은 이야기 텍스트가 학습독자를 거쳐 8가지로 유형의 이야기 구조로 구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야기를 빛에, 학습독자를 프리즘에, 위의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빛의 스펙트럼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이야기라는 빛이 학습독자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구조의 스펙트럼을 빔어내는 것과도 같다.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통한 이야기 구조가 위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자아와 세계 및 관계의 정서를 해석하는 주체적 권한이 독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야 한다. 허구적 자아의 정서나 인식된 세계 및 그들의 관계 해석 역시 절대적 '작용기제' 하나로 규정될 수 없다. 그것은 학습독자의 '감상위치'가 형성하는 '해석의 신축성'에 따른다. 이로써 학습독자가 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는 모두 8개의 구조적 층위를 형

될 경우 이야기 구조는 화해구조로 해석된다. 그 화해의 양상이 해와 달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픈 관계로 해석하기 쉽고, 그럴 경우 이 이야기는 오누이의 슬픔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이룬 이야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성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 구조의 구성은 전래 이야기와 창작 이야기에 두루 적용되어 아동서사문학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텍스트 안의 플롯 특징도 추출할 수 있다. 근대 이후에 창작된 동화 가운데 이들 각각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족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서, 충족자아와 행복세계가 상호조하는 플롯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 관계구조는 이상의 <황소와 도깨비>에서 구성할 수 있다. 지동환의 의인동화인 <여우와 꿈>에서는 충족자아나 행복세계가 상대를 기만함으로써 배반 관계가 형성되는 배반구조의 구성이 가능하다. 손춘익의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에서는 충족자아가 불행세계를 이해함으로써 형성되는 해결구조를, 정휘창의 <원숭이 꽃신>에서는 충족자아가 불행세계의 도전에 패배하는 특징을 중심으로 긴장의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핍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서, 권정생의 <강아지똥>에서는 결핍자아가 행복세계를 수용함으로써 결핍자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극복구조를, 마해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는 결핍자아가 행복세계에 거부됨으로써 형성되는 갈등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홍의 <메아리>에서 결핍자아나 불행세계가 서로를 연민한다는 특징으로 하는 화해구조를, 방정환의 <만년샤쓰>에서는 결핍자아와 불행세계가 서로 고립되고 불화하는 플롯 특징을 추출하여 불화구조의 구성이 가능하다.

IV. 논의 맺기

이 논문에서는 아동서사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감상하는 데 하위 장르의 제한 없이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설계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문예학의 특성을 지닌 구조주의적 관점과 교

육학적 장점을 지닌 구성주의적 관점을 통합하여 독자가 자율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감상 모형을 지향하였다.

논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교 문학교육에서도 이야기 구조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 이 때, 학습독자 스스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미적 구조물로서의 이야기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이에 적합하다. 둘째,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설화'와 '동화'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 서사문학을 대상으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구조를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협력구조', '배반구조', '해결구조', '긴장구조'와 '극복구조', '갈등구조', '화해구조', '불화구조'이다. 셋째,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이 이야기 감상 교육에 적용될 경우 그것은 학습독자에게 이야기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하고, 이해와 감상의 자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 구조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보는 경험은 이야기 감상능력을 고양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세계의 경험을 삶의 총체성에 대한 체험으로 승화시켜 주는 문학교육적 기능으로써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가치는 이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이 이야기의 허구적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구조 탐색을 지향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므로 관계 중심의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궁극적으로는 학습독자를 인간과 삶에 대한 능동적 해석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야기 교육에 적용할만한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는 그 대상을 아동서사문학과 초등 학습독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설계하고, 그 교육적 계획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습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적용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또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수립하는 데에도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스토리 중심이 아닌 소설문학에 이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남겨진 과제는 구조주의만으로도 곤란하고 구성주의만으로도 충분하

지 않은 문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폭넓게 창출하고, 그 교육적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야기 구조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이야기 교육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아동서사문학교육론'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후행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아르케.
- 권혁준(1997),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 김경희(1996),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상욱(2001), 「어린이문학의 특성과 어린이문학의 생활화」,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학』 제8호, 역락, 겨울.
- 김중신(1997),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 김정희 · 김현주 · 정인숙(1998), 『아동발달심리』, 동문사.
- 김제한(1998), 『발달심리학』, 양서원.
- 나병철(1998),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 나병철(2000),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 목영해(1998), 『현대 상대주의철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 박인기(2000),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교육의 향방과 재개념화」,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제11집, 한국문화사.
-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용어사전』, 대교출판.
- 송 면(1985), 『소설미학』, 문학과 지성사.
- 신헌재(2002), 「학교 문학교육의 위상과 지향점」, 한국문학교육학회, 제28회 학술대회자료집.
- 우한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 이경화(1997), 「이야기 스키마 사용을 통한 전래동화 지도 방안」, 초등국어교육학회 편, 『국어수업방법』, 박이정.

- 이삼형(2002),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제14집, 6.
- 이상구(1998),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 옥(1988), 「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 계간문예춘추 문학사연구회 편, 『문학의 구조주의적 접근』, 백문사.
- 임규혁·이차숙(1994), 『발달심리학』, 집문당.
- 조동일(1981),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 조동일(1993),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 설정」, 김열규·조동일·소재영·황패강,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 주경복(1996), 『레비스트로스』, 건국대학교출판부.
- 최운식(1994),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 최운식·김기창(1998), 『전래동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편(1999),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 한철우·김명순·박영민(2001), 『문학중심 독서지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명숙(2003), 「이야기의 유형과 용어에 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 제26집.
- 도브로프스키·토도로프 편, 윤희원 옮김(1996), 『문학의 교육』, 하우.
- 레비-스트로스, 임옥희 역(2000), 『신화와 의미』, 이כל리오.
- 리몬-케넌(1999),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 매클린, 임병권 역(1997), 텍스트의 역학 : 연행으로서 서사, 한나래.
- 베델하임, 김옥순·주옥 옮김(1998), 『옛이야기의 매력1·2』, 시공주니어.
- 브링커, 이성만 옮김(199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부룩스·부룩스, 추병완·최근순 옮김(2001),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 솔츠, 위미숙 옮김(1992), 『문학과 구조주의』, 새문사.
- 슈미트, 박여성 옮김(1995), 『구성주의』, 까치글방.
- 슈미트·하우프마이어, 차봉희 옮김(1995),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 스미스, 김용섭 역(2000), 『이동문학론』, 교육학연구사.

- 에이브람스, 최상규 역(1997), 『문학용어사전』, 예림기획.
- 이저, 차봉희 편(1993), 『독자 반응 비평』, 고려원.
- 주네트·리피르·화이트·채트먼, 석경징·여홍상·윤효녕·김종갑 역음
(1997), 『현대서술 이론의 흐름』, 솔출판사.
- 채트먼, 김경수 옮김(2000),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 코헨·샤이어스, 임병권·이호 옮김(1997), 『이야기하기의 이론』, 한나래.
- 토도로프(1987), 『구조시학』, 문학과지성사.
- 토도로프(1995),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 틀란, 김병욱·오연희 공역(1995), 『서사론-비평언어학적 서설』, 형설
출판사
- 파터, 이성만 옮김(1995), 『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 : 한국문화사.
- 프라이, 김상일 역(1987), 『신화문학론』, 을유문화사.
- 프라이, 이상우 역(1992),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 프라이, 임철규 역(1987), 『비평의 해부』, 한길사.
- 프린스, 이기우·김용재 역(1992), 『서사론사전』, 민지사.
- 프랭스(프린스), 최상규 역(1999),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 프롭, 유영대 옮김(2000), 『민담형태론』, 새문사.
- 홀랍, 최상규 역(1985), 『수용이론』, 삼지원.
- 화이트헤드, 신헌재 편역(1992), 『아동문학교육론』, 범우사.
- Brown & Tomlinson, *Essentials of Children's Literature*(3rd.).
Allyn & Bacon(1999).
- Bruner, J., *Actual Mind*(1986), *Possible Worlds*.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 Cox, C., *Teaching language art : A student-and response-
centered classroom*(2th ed.). Boston: Allyn &
Bacon(1996).
- Cullinan, E.,(1989) *Literature and The Children*.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l.
- Hillman, J.,(1999) *Discovering Children's Literature*(2rd.).

Prentice-Hall, Inc.

- Rosenblatt, L. M.,(1990) Retrospect. In E. J. Farrell, & J. R. Squire(Eds.), *Transactions with literature*. IL: NCTE.
- Rosenblatt, L. M.,(1994)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8).
- Stein, N. & Policastro, M.,(1984) The concept of a story, In Mandl, H. & Stein, N.(eds). *Learning and comprehension of text*. LEA.
- van Dijk, T. A., & Kintsch, W.,(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5).

〈초록〉

이야기 구조의 구성 모형에 관한 연구

한 명 숙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 구조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초등의 학습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는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과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제3의 관점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문학교육이 학습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독자를 심미적인 감상의 주체로 기르는 충실한 서사문학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논의의 기반으로서 먼저 개념태로서의 이야기와 이야기 구조의 의미를 살핀 후, 초등 문학교육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의 개념과 이야기 구조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야기의 개념은 '허구적인 자아와 세계의 관계 양상이 작품외적 자아에 의해 구성된 또 하나의 허구 세계'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이야기 구조는 '자아와 세계가 이야기 속에서 형성하는 관계구조'라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야기 구조의 구성 모형의 설계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허구적 자아의 정서, 인식된 허구 세계, 자아와 세계의 관계 해석이라는 세 가지 '구성소'이다. 텍스트 중심의 이들 구성소는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 각각의 '작용 기제'를 갖는데, 이 '작용 기제' 설정에서는 학습독자의 이원적인 정서 반응을 반영하였다.

이들 구성소 및 작용 기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데는 학습독자의 '감상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감

상위치'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사건 및 그 관계 양상 가운데 학습독자가 특별히 마음을 기울이거나 특별한 반응을 생성하는 이야기 공간을 의미한다. 이 '감상위치'는 학습독자에게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해석의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독자 중심의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각 구성소와 작용기제의 작동에 따라 8가지 이야기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구성소로서 허구적 자아가 '충족 자아 / 결핍 자아'로 분화되고, 인식된 세계가 '행복 세계 / 불행 세계'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기쁜 관계 / 슬픈 관계'라는 작용기제를 거침으로써, 이야기 구조를 구성한 결과이다.

먼저 충족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구조는 자아가 행복 세계 혹은 불행 세계와 기쁜 관계 혹은 슬픈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적 양상이다. 이들은 각각 '협력구조', '배반구조', '해결구조', '긴장구조'로 도식화된다. 다음으로 결핍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구조는 자아가 행복 세계 혹은 불행 세계와 기쁜 관계 혹은 슬픈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이들은 각각 '극복구조', '갈등구조', '화해구조', '불화구조'로 유형화된다.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은 아동서사문학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에 창작된 동화의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이 될 것이다. 이 연구로서 이야기 구조에 대한 체험이 이야기 감상 도구로서 기능을 하며, 독자가 이야기 구조를 구성해 봄으로써 이야기 감상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부여해 주어 자율적 감상을 통한 심미적 체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를 지향한다.

【핵심어】 이야기, 이야기 구조, 구성소, 작용기제, 이야기 구조 구성 모형

<Abstract>

**A study on the Model for Constructing of
Story Structure within children's Narrative
Literature**

Han, Myöng-soo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sign the model for constructing of story structure within children's narrative literature. This study make reference to story about two aspects. One is treat of concept aspect, another is existence aspect. A story as concept aspect is except discourse of narrative.

A story as concept aspect is defined that : Story is secondary fiction constructed by learned reader, in which the fictional character have relation with his environment. Story structure is relationship structure, in which the fictional character relates to his environment. Story structure as student's constructing style is relationship structure constructed by learned readers.

Accordingly, this study is designed the model for constructing of story structure within children's narrative literature. The components of the model are three factors. One is emotion of characters. Other is environment of characters included other characters and all events and all backgrounds. Another is relationship that the character

related to his environment. These factors are called 'constructing factor' in this study.

And that, these three factors have each operating mechanisms constructing story structure that : First, emotions of characters divide into satisfied aspect and unsatisfied aspect. Second, environments of character are divided into happy aspect and unhappy aspect. Third, relationships of character and environment are divided into pleasure emotion aspect and sad emotion aspect. These mechanisms are called 'operating mechanisms' in this study.

Through this model for constructing of story structure, students have to construct story structures of eight types. These are collaboration structure, betrayal structure, solution structure, tension structure, overcome structure, confliction structure, compromise structure, discord structure in story. And these story structures are constructed by three constructing factors of story and each operating mechanisms and stance in appreciation of student.

What is more, we have to teach story structure to students in Korean language arts for the future. And we should intend to realize more effective educational experience of children's narrative literature. This study is to serve as a guide for the realization effective education of children's narrative literature for students.

【Key words】 story, story structure, constructing factor, operating mechanisms, stance in appreciation, the model for student's constructing of story structure